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3차전 포르투갈과의 경기를 앞둔 축구대표팀의 손흥민·황희찬 등 선수들이 1일 오전(현지시간) 카타르 도하 알에글라 훈련장에서 몸을 풀고 있다. /연합뉴스

수출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무역수지는 8개월째 적자 11월 수출 전년 대비 14% 급감

한국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수출이 두 달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흔들리고 있다.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며 무역수지도 8개월 연속 적자의 늪에 빠졌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7년 이후 25년 만에 가장 긴 적자 기간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11월 수출입 통계를 발표했다.

11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603억3000만달러)보다 무려 14.0%나 급감한 519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지난 10월 수출액이 전년 동월 대비 5.7% 줄어 2020년 10월(-3.9%) 이후 2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데 이어, 두 달 연속 수출액이 줄어든 것이다. 코로나 확산 초기인 2020년 3~8월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이상 연속 감소한 것이다.

산업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주요국 통화 간축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와 화물연대 집단 운송 거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며 "지난해 11월 실적이 2020년 동월 대비 31.9% 증가해 11월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한 데 따른 기저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1~11월 누계 기준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7.8% 증가한 6291억달러를 나타내며 사상 처음 11월 중에 수출 6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11월 수출은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31.0%), 석유제품(26.0%), 이차전지(0.5%)는 증가했으며 특히 자동차는 월별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다.

11월 수입액은 전년 동월 대비 2.7% 늘어난 589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70억1000만달러(약 9조1000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무역수지는 지난 4월부터 8개월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8개월 이상 연속 적자는 1995년 1월~1997년 5월 연속 적자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연합뉴스

문화전당 '미디어월' 철거 후 이전한다 ▶6면

광주일보 제9기 14차 독자위원회 회의 ▶14면

북스 - '조선패션본색' '몸짓의 철학' ▶15면

사랑과 감사의 68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2]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이강인 패스 - 손흥민 발로·조규성 머리로 '골인' ... 호날두가 별거냐? 포르투갈 꺾고 16강 진출"

오늘 밤 포르투갈과 H조 최종전
축구 팬들 "2002 신화 다시 한번"

한국 축구 대표팀과 포르투갈의 '2022 카타르 월드컵' 조별리그 최종전을 앞두고 '2002년 월드컵'을 떠올리는 팬들이 많다. <관련 기사 18면> 당시 한국은 우리나라에서 열린 D조 예선 3차전에서 박지성의 결승골로 포르투갈을 1-0으로 침몰시켰다. 한국은 강호 포르투갈을 잡으면서 16강에 진출, 월드컵 4강 신화를 일궈냈다.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3일 카타르 알라이안트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월드컵 조별리그 H조 최종전에서 포르투갈을 상대한다.

1무 1패인 한국은 반드시 포르투갈을 꺾어야 16강 진출 희망을 이어갈 수 있다.

많은 팬이 그때를 떠올리며 이번에도 포르투갈을 꺾고 16강에 오르는 극적인 반전을 고대하고 있다.

공은 동글다. 포르투갈이 물론 강팀이지만 '세계 최강'의 위용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외국 배팅업체 가운데 하나인 '윌리엄 할'의 경우 한국이 1-0으로 이기는 배당률 14/1, 포르투갈의 1-0 승리 배당률 13/2 정도로 보고 있다.

객관적으로 포르투갈은 FIFA 랭킹 9위로 28위인 한국보다 한참 위에 있는 나라다. 게다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라는 '슈퍼스타'까지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에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는 않다. '에이스' 손흥민(토트넘)과 '차세대 에이스' 이

축구가 주는



즐거운 상상

강인(마요르카), 광주대 출신 조규성이 견제한다. 수비진의 '최종 병기' 김민재의 출전도 예상된다. 조규성의 골감각이 물 올랐고, 창의적인 패스와

킥을 보유한 이강인도 최종전을 버리고 있다. 조규성은 한국 선수 최초로 월드컵 본선 무대 1 경기에서 2골을 넣는 신기록을 작성하는 등 최고의 경기력을 유지하고 있다.

더구나 현재 포르투갈은 2승으로 16강 진출을 이미 확정해 여유가 있다.

갈비뼈 골절인 다닐루 페레이라는 물론 부상 회복 중인 오타비우, 우루과이와 2차전 경기 도중 근육 부상으로 교체된 누누 멘드스 등이 한국전을 쉬어갈 가능성이 있다.

조 1위를 해야 16강에서 브라질을 피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포르투갈은 한국에 1골 차로 지고, 가나가 우루과이를 1골 차로 이겨도 조 1위를 지킬 수 있다.

비기지만 해도 조 1위 확정이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4년 전에 비해 '해보자'는 팀 분위기가 훨씬 뜨겁다.

이번에는 1, 2차전에서 1무 1패에 그쳤지만 경기 내용이 나쁘지 않았고, 벤투 감독이 2차전 퇴장으로 벤치를 비우게 돼 오히려 선수들의 투지를 자극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또 포르투갈의 간판 호날두에게는 우리나라 축구 팬들을 대신해 선수들이 갠 줄 '빔'도 있다.

호날두는 2019년 유벤투스 소속으로 서울에서 열린 친선 경기 출전을 위해 방한했지만 원래 계약 내용과 달리 1분도 뛰지 않아 '날강두' (호날두와 날강도를 합성한 말)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당시 분노한 팬들이 호날두의 소셜 미디어에 물러가 불쾌한 감정을 여과 없이 표출했고, 행사 주최사를 상대로는 대규모 민사 소송까지 냈을 정도였다.

'포르투갈전이 마지막 경기야 아니길 바라'는 팬들의 여망을 안고 경기장에 나서는 벤투호가 어떤 결과를 낼지 주목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전라남도자치경찰위원회

범죄예방 인프라 구축

노인, 아동, 여성 등 사회적약자 보호

보행자 보호 및 교통사고 예방 강화

안전한 오늘! 든든한 내일!

전라남도 자치경찰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미래, 행복한 전남